

Standardization &gt;&gt;&gt;

## 표준화

### 제52차 정보통신표준총회 개최

#### - TTA 표준 34건 채택, KICS 건의대상 36건 선정 등

지난 6월 22일 개최된 제52차 정보통신표준총회에서 옥외설비, LBS, DMB 관련 기술을 포함한 총 34건의 TTA 표준이 채택되었으며, 49건의 표준을 폐지하였다. 아울러 TTA 표준 36건이 정보통신국가표준(KICS) 건의대상으로 선정되었다.

금번 정보통신표준총회에서는 u-건강관리 서비스 환경을 구축하고 관련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개발하는데 있어 상호운용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u-건강관리 서비스 실현을 위한 참조모델(TTAS.KO-10.0236)' 표준을 채택하였으며, ITU 권고문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12건의 TTA 표준을 개정하였다. 또한 개정표준이 채택됨에 따라 기존 표준에 대한 수요가 사라진 구표준 27건을 포함한 총 49건의 표준을 폐지하였다. 그 밖에 관련 산업체간의 호환성을 확보하고 국가적 핵심선도기술을 도입하기 위해 국가표준 14건 제정과 12건의 개정, 10건의 폐지를 건의키로 의결하였다.



### 제61차 운영위원회 개최

지난 2007년 6월 8일 S/W관련 프로젝트그룹 이관, 표준화 과제 채택 및 폐지 등을 주요 의결 안건으로 제 61차 운영위원회가 개최되었다.

주요 결과로는 IT응용기술위원회(TC4) 산하 2개 프로젝트그룹(S/W컴포넌트, S/W품질평가)을 공통기반기술위원회(TC1)산하로 이관하여 S/W 관련 프로젝트그룹간의 시너지 제고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i-PIN 서비스 프레임워크', '차세대PC용 웨어러블 미들웨어 API' 등 총 56건의 표준화과제를 선정하였고, 표준화 추진 필요성이 소멸된 19건의 표준화과제를 폐지하였다.

### 월드DMB포럼과 국제표준화협력 MOU 체결

TTA는 6월 13일 57차 월드DMB포럼 운영위원회에서 월드DMB포럼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월드DMB포럼은 DMB 분야의 유럽 표준 제정과 관련한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단체로서 2005년 TTA의 지상파DMB표준의 유럽표준(ETSI)화 때부터 TTA와 협력해 왔고, 이후 줄곧 DMB미들웨어 표준 등에 있어서 상호 협력을 진행해 왔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DMB 관련 기술의 국제표준 제정 작업을 위한 공식적인 협력체제가 구축됐고, 국내 지상파 DMB 기술의 우수성을 보다 효율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월드DMB포럼은 BBC, 마이크로소프트, JVC, 후지쯔 등 DAB/DMB 관련 세계 굴지의 회사 및 ITU, ETSI, EBU 등 국제표준화기구 등 100여 개 기관이 회원사로 참여 중에 있으며, 유레카-147에 기반을 둔 DAB/DMB 서비스의 홍보와 보급 업무를 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TTA, ETRI, 삼성전자, LG전자 등이 회원사로 활동 중이다.

## TTA 중점기술 표준화로드맵 수립 및 기술표준기획전담반 합동회의

TTA에서는 매년 국내외 기술표준화 환경분석 (Top-Down), 민간 수요조사(Bottom-Up) 등을 바탕으로 표준화 중점기술을 선정하고, 국내외 표준화 추진을 위한 전략과 방향을 제시하는 표준화로드맵을 연동 계획(Rolling Plan)으로 수립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기술표준기획전담반 제1차 합동회의(6/2, 7/2, 7/6)를 개최하였으며, u-Health, 가시광통신 (VLC: Visible Light Communications), SOC(Service Oriented Computing), 차세대 DMB, 무선 재난통신 등 신규 융·복합 분야를 포함하여 총 35대 중점기술을 선정하였으며, 신성장동력 PM을 포함하여 산·학·연·관 국내 정보통신표준화 전문가 250여 명이 참여하여 Ver. 2008을 발간할 예정이다.

분야	중점기술
차세대 이동통신	IMT-Advanced, WiBro Evolution, Mobility Management, WPAN/WBAN, WLAN, VLC, 무선 재난통신
RFID/USN	RFID, USN 네트워크/응용
텔레매틱스	Telematics
BcN	BcN 전달망/서비스 구조, IPv6, MoIP, LAN/MAN, BcN 통합 식별체계, IPTV
u-Home	u-Home 플랫폼, u-Home 서비스 포털
디지털방송	3D TV방송, 차세대 DMB
정보보호	암호/인증/권한관리, 개인정보보호/ID관리, 네트워크 및 시스템 보안, 응용보안/평가인증, 바이오인식
차세대컴퓨팅	나노 SoC
IT SoC	디지털콘텐츠 보호/유통,
디지털콘텐츠	3D 표현 및 혼합현실 영상데이터 처리
S/W 솔루션	SOC, 모바일 S/W 플랫폼, 차세대웹, u-Health
지능형로봇	지능형 서비스 로봇

〈35대 중점기술〉

## ITU-T SG3 TAS 국제회의

지난 7월 3일부터 6일까지 ITU-T TAS 국제회의 및 국제요금 세미나가 19개국 52명의 요금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TTA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TAS(Tariff Group for Asia and Oceania)는 ITU-T SG3(과금 및 회계원칙 위원회) 산하에 있는 4개의 지역 요금그룹 중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요금그룹으로서, 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 내 요금 및 접속관련 이슈를 논의하여 그 결과를 SG3에 보고하는 위원회이다. 이번 TAS 국제회의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TAS 요금모델 확장(LRIC) 관련하여 차기 SG3 회의에 한국에서 D.500R 개정제안을 하거나, LRIC 부속서를 개발하기로 하고, 네트워크 확장성에 대하여 추가로 연구를 진행하기로 함. ② 인도에서 SG3 회의에 D.212 (SMS, MMS, 비디오/음악을 포함한 이동 데이터 통신의 정착) 개정 제안을 하기로 함. ③ NGN 요금 관련 연구, IP 트래픽 기록 관련 연구, 국제인 터넷연결성 관련 연구를 지속하기로 함. ④ TAS 내에 ITR(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Regulations)을 검토하기 위한 그룹을 신설 ⑤ WTSA-08을 준비하기 위하여 이병남 박사(한국)를 중심으로 결의 17과 26의 개정여부를 논의하기로 함. 차기 TAS 회의는 2008년도 1월에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다.



## 3GPP, W-CDMA와 WiBro간 상호연동 표준 개발키로

지난 5월 28일부터 6월 7일까지 비동기식 WCDMA 기반의 IMT-2000 3세대 글로벌 이동통신 기술규격을 개발하는 3GPP회의가 TTA 주관으로 부산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와 병행하여 개최된 TSG-RAN 워크숍에서 3GPP LTE와 타 망(3GPP2/Mobile-WiMAX)과의 상호연동에 대한 논의 결과, LTE와 타 망과의 상호연동을 표준화 아이템으로 채택하여 금년도 12월까지 추진키로 결정하였다. 3GPP의 무선접속 규격을 개발하는 TSG-RAN회의에서는 3GPP LTE 규격 개발이 진행되었고, 3GPP의 서비스 규격을 개발하는 TSG-SA 회의에서는 공통 IMS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 유럽, 중국, 미국 및 일본 등의 표준기관 및 산업계 전문가 등 약 350여 명이 참석하여 비동기 WCDMA의 기술규격 개발을 위해 열띤 논의를 하였다.



### 제12차 세계표준협력회의(GSC-12) 참가

제12차 세계표준협력회의(12th Global Standards Collaboration)가 일본 ARIB 및 TTC의 주관으로 7월 8일부터 13일까지 일본 고베에서 개최되었다. 한국에서

는 TTA 김원식 회장을 비롯한 10명의 표준 전문가가 참가하여 WiBro evolution, USN, NGN, Cyber Security, DMB 등 주요 분야별로 다수의 기고서를 발표하고 주요 표준화기구들과의 상호협력체계를 강화하였다. 특히, TTA에서 제안한 USN(Ubiquitous Sensor Network) 분야의 공동 국제표준화 추진협력이 받아들여져 앞으로 RFID 및 USN표준화 분야에서 한국이 보다 주도적으로 표준화를 추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한편, 향후 NGN망간 원활한 상호운영을 위하여 GSC 참가 표준화기구들은 3GPP(3rd Generation Partnership Project)를 중심으로 하는 Common IMS의 개발에 협력하고, 현재 ITU-T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NGN의 개발에서도 Common IMS를 주요한 요구사항으로 고려키로 하였다. 또한, 4세대 이동통신(IMT-Advanced)의 표준화를 위해 TTA를 포함한 10개 표준화기구가 상호 협력하여 별도 작업반(Task Force)을 결성키로 하였고, 인지무선(CR: Cognitive Radio)도 기존 SDR(소프트웨어무선통신기술) 표준화 분야와 같이 연구결과를 지속적으로 공유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번 GSC-12 회의에는 한국의 TTA를 비롯하여,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유럽(ETSI), 미국(ATIS, TIA), 일본(TTC, ARIB), 중국(CCSA), 캐나다(ISACC) 등 세계 주요 표준화기구의 표준전문가 100여 명이 참가하였으며, 차기 제13차 GSC회의는 미국 ATIS(Alliance for Telecommunications Industry Solutions) 초청으로 2008년 7월초 미국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 교육 및 행사

#### - WiBro 표준기술교육

지난 6월 20일부터 22일까지 WiBro 표준기술교육이 TTA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교육은 총 6개의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관련업체 임직원 및 학생 등 총 86명이 참여하였다.

첫째 날, “WiBro 표준화 동향 및 강의 개요

(IEEE802.16e & IEEE802.16m(IMT-Adv))”와 “IEEE802.16e Specification(PHY)”에 대한 강의가 있었으며, 둘째날은 “WiBro의 MAC 규격” 및 “WiBro/Mobile WiMAX Performance Evaluation”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마지막날은 “WiBro를 위한 MIMO 기술” 및 “WiBro의 L2/L3 이동성 기술”에 대한 교육이 있었으며, “WiBro 물리계층규격 (IEEE802.16e Specification)” 및 “WiBro 성능평가 (WiBro/Mobile WiMAX Performance Evaluation)”가 수강생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었다.

### - 와이브로 워크숍

지난 7월 10일 TTA 국제회의실에서는 WiBro Evolution 표준기술 및 서비스 워크숍이 166명의 전문가가 참가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번 워크숍은 WiBro 서비스 망 구축현황과 WiBro 표준화 동향 등 2개 세션으로 구성되어 진행되었다.

첫번째 세션에서는 KT WiBro 망 구축 및 커버리지 현황, WiBro 망 서비스 측정기술, 옥내용 WiBro 시스템 기술개발 등 서비스 3개의 서비스 관련 주제를 다루었으며, 두번째 세션에서는 IEEE802.16m 표준화동향, IEEE802.16 Relay 표준화 및 기술동향, OFDMA TDD WMAN 국제표준화 현황, WiMAX 네트워크 표준과 표준화기술 등 4개의 표준화동향 관련 주제를 다루었다.

## ● Test & Certification ▶▶▶

### 시험 · 인증

#### TTA, 광주정보문화진흥원과 SW 시험인증 상호협력을 위한 MOU 체결

TTA와 (재)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원장 김영주)은 지난 6월 12일 광주지역 IT기업의 제품 품질 강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2005년 (재)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과의 MOU 체결 이후 지역 IT산업 발전을 지원하고 있는 지역 진흥원과의 두번째 협약으로 광주지역 IT제품 품질강화를 통해 지역 균형적인 IT 산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추진되었다.

이번 협약을 통해 TTA와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광주지역 IT/SW분야 기술 품질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 및 지원 사업을 공동 수행하고, 관련 산업 분야의 정보 및 자료를 공유하기로 하였다. 또한, 양 기관이 주최하는 관련 세미나 및 행사에 상호 지원하는 등 지역 IT산업 발전을 위해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 TTA, 모비온(모바일 RFID) 공식 시험기관 지정

모바일RFID포럼(이하 MRF)은 모비온(MOBION) 장비 인증을 위한 기술 및 시험규격에 대한 표준화가 완료됨에 따라 6월 8일자로 MRF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TTA를 모비온 시험기관으로 지정하였다. 모비온은 모바일 RFID 서비스 명칭으로서, 900MHz대 수동형 RFID 리더가 장착된 휴대폰을 사용하여 태그인식을 통해 사물에 대한 정보접속을 가능하게 하는 RFID서비스이다. 한국정보사회진흥원 주관으로 추진중인 2007년도 모바일RFID 확산사업에 적용되는 모비온 단말부터 모비온 인증을 MRF에서 부여하게 된다. TTA는 2005년부터 MRF 시험인증분과 활동을 통해 모비온 장비 인증에 필요한 시험규격과 인증기준(총 12건)개발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왔다. 모비온 서비스는 2006년도부터 정부차원의 시범사업이 전개되어 왔으며 2008년도부터 상용서비스 실시를 예상하고 있다.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모비온 서비스를 위해 관련 장비의 인증은 매우 중요하다. TTA는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모비온 시험소로서의 역할 수행을 통해, 국내 모바일 RFID 서비스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HDMI 시험 설명회

지난 6월 12일 TTA와 동서울대학은 HDMI (High-Definition Multimedia Interface) 기술 세미나를 개최, 관련분야 전문가 80명이 참여하였다. 세미나에서는 총 4개의 주제 발표가 이루어졌다. TTA 임동규 실장의 “HDMI 인증절차”로 시작하여 동서울대학 김동희 연구원의 “HDMI Test Spec. 1.3”, 삼성전자 윤찬호 대리의 “HDMI Test 항목별 평가 Review”, 그리고 실리콘이미지 김명환 과장의 “New HDMI Chip Introduction”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실제 HDMI를 장착한 제품의 제조업체들의 실무자들이 대거 참석하여 HDMI 인증을 획득한 제품들 사이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제품들 간의 호환성 문제점을 지적하는 등 열띤 논쟁이 있었으며, 참석자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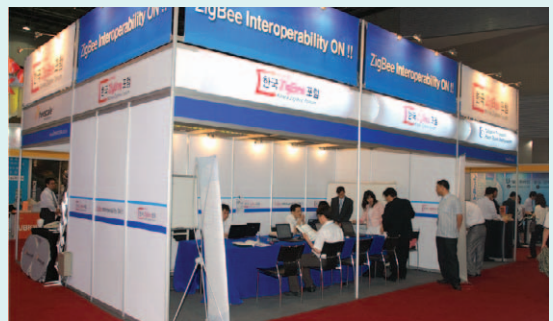
은 이러한 기술 세미나가 자주 개최되어 실무에 도움이 되는 정보교환의 장이 되기를 희망하였다.

## 교육 및 행사

### - ZigBee ION 2007

TTA는 5월 30일 일산 KINTEX에서 ZigBee 기술에 대한 ION(Interoperability ON) 상호운용성 시험 행사를 한국ZigBee포럼과 공동으로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에서는 ZigBee 전시관 관람객들에게 ZigBee 제품들이 서로 상호운용되는 데모를 보여주는 기회를 가졌다. 이를 위하여 5월 22일과 28일 이틀에 걸쳐 TTA에서 사전시험을 통하여 각사의 제품들이 상호운용되는지를 검증하였다. 올해로 세 번째 개최된 이번 행사에는 레이디오피스, 삼성전기, TI Korea 등 5개 업체가 참가하였으며, ZigBee-2006 기술스펙에 따라 구현된 플랫폼 위에 홈오토메이션 프로파일을 적용하여 홈오토메이션 관련 메시지가 ZigBee 표준에 따라 제대로 전송되는지를 확인하였다.

ZigBee 기술은 원격제어 및 센서통신을 위한 무선통신 기술로서 홈네트워크를 포함한 유비쿼터스 서비스 구현에 중요한 요소기술로 부각되고 있다. ZigBee 기술의 개발은 국내에서도 u-Home, u-City, u-Health 등의 첨단 유비쿼터스 서비스 구현계획과 함께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개최된 이번 ION은 ZigBee 개발업체에게 개발촉진 및 홍보의 좋은 기회가 되었으며 참여업체들 간의 호환성 확보와 오류검증을 통해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의미있는 행사가 되었다.



### - 2007 스마트홈 네트워크 전시회 참가

TTA는 5월 30일부터 4일간 고양시 한국국제전시장에서 개최된 “2007 스마트홈네트워크 쇼”에 정보통신부 정책홍보관(30개 부스) 내에 4개 부스의 규모로 전시에 참가하여 TTA의 정보통신표준화 관련 업무와 시험인증연구소의 시험인증업무를 홍보하였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은 이 전시회는 정보통신부, 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가 공동주최하여 국제규모의 홈네트워크 전문전시회로 자리잡았다. 114개의 업체에서 1만 2000여 점의 제품을 출품하였고, 해외 바이어 850여 명을 포함 1만 8천 여 명의 방문객으로 성황을 이루었다. TTA는 TTA의 표준의 제정과 표준자료의 보급, 시험인증연구소의 ZigBee 및 디지털방송 등의 시험인증업무를 소개하였고 특히 홈네트워크기기 시범인증에 참여한 6개 업체의 홈게이트웨이 및 월패드 인증제품을 전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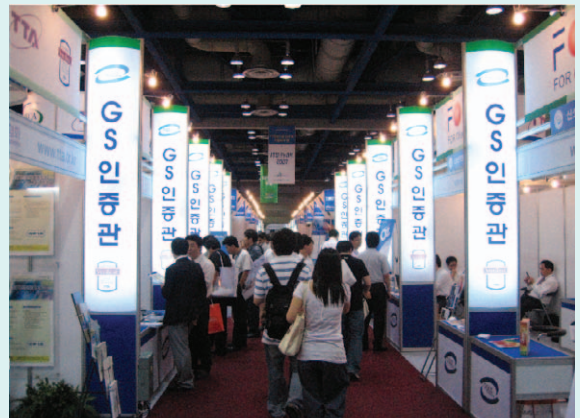
### - SEK 2007 GS인증관 운영

TTA는 지난 6월 20일부터 6월 23일까지 4일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 인도양관에서 개최된 「SEK2007」에 참가하였다. ‘유비쿼터스 라이프 2.0+’ 라는 주제로 정보통신부, 산업자원부, 과학기술부가 주최하고 전자신문사가 주관한 본 전시회는 크게 일반 테마관과 특별전시관의 두 분야로 진행되었다. 일반 테마관은 디지털가전관, 기업용 솔루션관, 글로벌 IT기업관, 시큐리티관,

차세대 통신관, 네트워크관, 스토리지관, 주변기기관 등 일반주제별로 구성되었고, 특별전시관은 GS인증관, NEP(IT신제품 인증)관, U-Society Solution관, URC로봇관,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홍보관 등 특별 주제별로 구성되어 총 230여 개 업체가 700여 개의 부스규모로 참여하여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GS인증관에는 2006년 GS(Good Software)인증을 받은 우수기업 15개 업체가 참가하여, GS인증제도와 GS인증제품을 홍보하였다. 관람객들이 GS인증제도와 GS인증제품에 많은 관심을 표명하여 1,000명 이상의 공공기관 수요처 관계자들, 국내외 바이어 및 일반 관람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주)포시에스, (주)닉스테크, (주)위세아이텍, (주)이노베이티브데이터솔루션, (주)엔씨티, (주)디자인메이드, (주)마크윈 등 국내 대표적인 SW업체들이 GS인증획득 자사제품들을 국내뿐만 아니라 인도, 타이완, 인도네시아, 베트남, 이란 등의 바이어 및 마켓 인에이블러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수출 상담 및 업무협약을 이루어 내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금년 ‘SEK2007’ 전시회는 GS인증제도를 국내외에 널리 홍보하고, GS인증제품의 인지도를 향상시키는 좋은 성과를 가져다주었다.



## - 제 15차 SW 테스트 전문가 양성교육

SW 테스트 전문기술 보급 및 전문가 양성을 위해 "제15차 SW 테스트 전문가 양성교육"을 6/25(월)~6/29(금)까지 5일 동안 40여 명의 SW 테스트 엔지니어 및 개발자가 참가한 가운데 TTA 대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본 교육은 지난 2003년부터 현재까지 15회에 걸쳐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현재까지 약 800여 명이 교육을 이수하였다.

SW 테스트 전문가 양성 교육과정은 기초과정과 응용과정으로 나누어, SW 테스트 개념, 테스트 프로세스, 테스트 기법, 테스트 계획과 관리, 테스트 종류, TMM, 공식 기술 리뷰, 테스트 케이스 설계 등을 교육하는 '기초과정'과 표준 적합성 테스트, 웹기반 SW 테스트, 임베디드 SW 테스트, 테스트 자동화 및 사례 등을 교육하는 '응용과정'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본 교육을 통해 SW 테스트 개념과 테스트 프로세스를 활용한 품질 개선 및 생산성 향상, 그리고 자동화 도구 사용능력 향상이 기대되며, 향후 교육과정의 전문화와 세분화를 통하여 양질의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SW 테스트 기술 보급 및 테스트 기술의 고도화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후 16차 교육은 2007년 9/10(월)~9/14(금)까지 개최할 예정이다.

### • 문의 : 차순일 실장

(031-724-0186, 전자메일: sicha@tta.or.kr)

김진희 전임

(031-724-0315, 전자메일: jinikim@tta.or.kr)



• etc >>>

## 기 타

### 산하기관 청렴교육 실시

지난 6월 8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교육이 개최되었다. 이 자리에서 송경호(정보통신부 감사관실) 강사는 부패에 대한 개념, 각 부처 및 산하기관의 청렴도 현황, 부패·부조리 사례, 청렴도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 등을 중심으로 직원들의 공정한 직무수행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시간이 되었다. 특히, 행동강령 상담사례를 통해 업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들을 통해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실천방안을 알기 쉽게 설명하였다.



### 옥상 휴게 공간 마련

TTA 사옥 옥상의 공간을 활용하여 직원들의 휴식장소로는 물론 모임, 회의의 장소 등으로 이용되고 있다. 벤치와 운동기구 등을 배치해 갑갑한 사무실이 아닌 옥상의 공간에서 차 한 잔을 나누며 아이디어 회의도 하고, 기구를 이용하여 틈틈이 체력 단련을 하는 직원들을 볼 수 있다. 그동안 별로 찾지 않던 콘크리트 건물 옥상이

직원들이 심신의 피곤을 달랠 수 있는 휴식처로는 물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창출해 내는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는 등 다목적 공간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지속적으로 직원 편의 시설을 늘려 직원들이 이곳에서 일상의 피로를 떨쳐내고 새로운 에너지를 재충전하는 장소로 자리매김 해 나갈 것을 기대해 본다. **TTA**

